

“주민자치회가 곧 지방정부” 광산구 생활자치 활성화

‘광산형 주민자치회’ 시행 3년째 12개동 운영...박람회 잇단 수상도 내실다지기 행·재정적 지원 박차

광주 광산구가 풀뿌리 주민자치 시대 정착을 위해 추진중인 ‘광산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3년째를 맞이하면서 성공적인 자치행정을 돕는 지방분권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산형 주민자치회’가 올해로 시범 사업 3년차를 맞이했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분산된 기관·단체·마을활동가·청년 등이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 생활자치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주민자치 조직이다.

광산구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에 앞서 2018년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인 주민자치회 모델을 정립해 본격적인 활성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존 운남·우산·첨단2·어룡·수안·하남·첨단1·신가·신정동 등 7개동에 이어 지난 2월 월곡1·월곡2·평동 등 3개동도 주민자치회를 출범시켰다.

현재 광산구 전체 21개동 중 절반이 넘는 12개동이 자치회를 운영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고 있다. 2019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광산구가 제도정책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첨단2동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



광주 광산구청 2층 상형실에서 최근 열린 광산형 주민자치회 정책간담회에서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이영훈 광산구의회 의장,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주민자치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치분야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산동 주민자치회의 경우는 첫 자치회를 발족한 이후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주민자치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광산구는 이 같은 성과에 따라 3년차를 맞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달 8일 각 주민자치회장, 광산구의회,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외부전문가 등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 주민자치회장들은 탄탄한 자립 기반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 구축, 공모사업 수행 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또 주민자치회 사무국 인력 운영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들의 임기를 통일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운영비도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모나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주민자치교육도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의제를 발굴하더라도 주민참여예산을 연계한 사업 추진 시 그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양질의 마을의제를 도출해 직접 해결하는 것까지 주민들 스스로 경험을 쌓고, 자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구조가 필요

하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단된 주민자치프로그램 재개방안 등이 해결책으로 제기돼 공감을 얻었다.

광산구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광산구의회, 공익활동지원센터, 주민자치회와 함께 TF팀을 꾸려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산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총회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광산구민들이 직접 마을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주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모집

광주시는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을 점검하는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킴이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등을 방문해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난간 및 시스템 비계의 안전한 설치,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안전관리전문기관 경력 등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이거나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사 등 해당 자격 소지자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총 4명을 선발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광주시 노동센터 홈페이지에 4일부터 올라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농업인 실증시험 사업 대상자 모집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빅데이터 수집을 통한 스마트팜 생육모델 개발을 위해 ‘농업인 실증시험 연구사업’ 대상자 16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연구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의 농업환경정보를 정보통신기술(ICT) 관제시스템으로 수집한 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가별 생육과 수확량 예측 기능 구현 등 최적의 생육관리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양액시설 하우스 농업인으로 인터넷 설치가 가능하고 3년간 농업 환경 및 경영 등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농업 소식-새소식에 기재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디지털 사이니지’ 첨단에 제막

광주 광산구가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달 30일 첨단LC타워에서 디지털 옥외광고판인 디지털사이니지 제막식을 가졌다.

광산구는 앞서 광주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에 주관하는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총 7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민·관협의체를 거쳐 첨단중앙로 일대 상권에 디지털 사이니지 총 8기를 설치했다. 네트워킹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인 디지털 사이니지는 상업광고는 물론 공공서비스, 지역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미디어다.

첨단에 설치된 디지털 사이니지는 지역상인을 지원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공공미디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첨단지구 상업시설 300여 곳에 대한 자세한 소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홈페이지 형식으로 구성된 자료에는 가게의 위치, 대표 메뉴 및 서비스와 각종 이벤트가 소개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디지털 사이니지가 골목상권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광산 실현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오감 콘텐츠’로 도산동 골목상권 활성화 나선다

행안부 공모 선정 8억 원 확보

광주 광산구가 도산동 골목상권을 ‘오감 자극 테마거리’로 조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광산구는 “지난 3일 도산동 골목상권 ‘오감 상생(相生) 도루메길 피어나다’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1년 골목경제 회복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골목경제의 회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연계한 골목경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전국에서 6개 사업을 최종 선정, 사업별로 8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한다.

‘오감 상생(相生) 도루메길 피어나다’ 사업은 도산동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감각을 자극하는 테마거리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골목길 경관 개선(靚, 볼거리) ▲국궁 임방울 문화콘텐츠 활용 테마거리 조성(聽, 들을거리) ▲골목길 방역강화 및 스타상인 육성(味, 맛볼거리)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맑은공기 골목길 조성(嗅, 향기거리) ▲비대면 주문서비스 구축(觸, 연결거리) 등이다.

도산동 골목상권은 지난해 기준 광산구에서 가장 높은 폐업증가율을 보이고 전국 매출액 기준 평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의 성과물인 도산동 아트로드에서 펼쳐진 공연. <광산구 제공>

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장 잠재력은 여전한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주-나주 경계에 위치한 관문상권이고, KTX가 관통하는 광주 송정역과 300m, 1913송정역시장과 도보로 채 5분도 되지 않는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는데다, 원도산 도심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의 시너지 효과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광산구와 도산동골목상권활성화협의회(회장 양호원), 도산동(동장 이금성)의 협력·연대로 이뤄낸 성과물로, 도산동 상권

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의지도 남다르다.

광산구는 앞으로 도산동 상인, 시민, 호남대 LINC사업단, 기업주치의센터와 함께 ‘도루메길 골목상권 상생공동체’를 구성하고, 도산동 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골목 경제를 회복하고, 골목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관련 사업을 골목경제 회복 전국 우수사례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G-IN스타트업JUMP’ 기업 모집

광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예비창업자-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2021년 G-IN 스타트업 JUMP’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재)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잠산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해 성공적인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예비창업자 및 광주시에 분사 또는 지사를 둔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신기술(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9곳을 선정하며, 사업화 자금 최대 5000만원(차등지급)과 함께 창업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멘토링, 시제품제작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업신청은 광주시 및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gwangjujceci@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